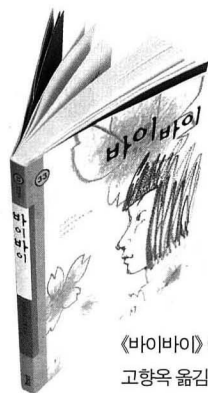


《바이바이》로 일본서 화제 일으킨 재일동포 동화작가 이.경.자.

나약한 ‘나’에게 보내는 결별선언, ‘바이바이’



《바이바이》이경자 지음 | 시모다 마가카츠 그림 | 고향옥 옮김 | 우리교육 | 192쪽 | 값 7,000원

재일조선인 작가 이경자 씨가 한국을 찾았다. 제36회 일본아동문학자협회 신인상을 받은 성장동화 《바이바이》의 한국어판 출간기념회를 위해서다. 이미 일본사회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이바이》는 재일조선인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성장동화로 이방인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아이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10여 년 근무했는데 청소년 월간지에 소설과 에세이 등을 기고하다가 주변의 권유를 받고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제 체험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인 친구에게서 ‘조센진’이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 스스로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했지요.”

그는 대학에 들어가 조국의 역사와 말을 배우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도 자신을 닮은 재일동포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강한데 동화 속 11살인 가즈와 그의 가족들은 해방 전 일자리를 찾다가 일본에 눌러앉게 된 이씨의 가족들과 닮은꼴이다. 일본 후쿠이 현 츠루가 시의 1960년대를 배경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재일교포들은 바느질, 생선장사 등을 해가며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아이 눈에는 낯선 일을 하며 사는 어른들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온통 진흙탕 투성이에다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하는 환경,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일본 밖으로 나

갈 수 없는 현실 등 세계는 너무도 암울하다. 작가는 ‘조센진’이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충고한다.

“지금보다 더 폐쇄적인 시대에 살았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갔던 평범한 재일동포들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메시지를 담았지요. 자신의 정체성, 민족성을 잃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딱서니 없는 아이가 의젓한 소녀로 성장하면서 던지는 ‘바이바이’라는 인사말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나약한 자신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글을 쓰면서 옛일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 고백하는 작가는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인다.

“외국인등록을 했을 때 14살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척 충격적인 일이었는데도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닌 게 됐어요. 세월은 귀중한 기억도 망각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졌나 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간절히 동화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195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을 ‘덩어리 세대’라고 부른다. 출생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경자 씨와 동화 속 가즈는 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세대다. ‘이방인’이라는 질시어린 눈길을 받으며 보낸 세월은 지금 교포들의 삶보다 몇 배나 더 힘겨웠다. 이경자 씨는 교포 1세대들의 꾀꿇한 삶의 모습을 본보기 삼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물론 교포 아이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뭐든 다. 어찌까지의 나와 작별하는 거야”라며 새로운 나와 조우하는 가즈의 성장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

시대비판 일색에서 벗어나 명쾌하게 우리 자신의 소아병적인 태도를 지적한 이경자 씨는 지금의 재일교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또 다른 동화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한**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